



컨설팅학과 이야기

2022년 신년사 (한창희 교수님)

경영컨설팅학과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경영컨설팅학과 교수님,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양대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는 이미 국내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 교육 기관으로 우뚝 솟았으며, 졸업생들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이나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학과의 지식서비스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최첨단 교육방법론 및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영컨설팅학과 모든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국제화와 경쟁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 하에서,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영컨설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양대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는 올해도 실용 학풍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영컨설팅학과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영컨설팅학과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주임교수 한창희

2021년 12월 경영컨설팅학과 학술세미나



12월 23일 (목) 오후 2시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상관 304호에서 ‘2021년 12월 경영컨설팅학과 학술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식서비스연구소 연구원들과 학생연구원 및 외부초청강사 총 12분께서 온·오프라인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본 세미나는 지식서비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철민, 노지성, 김해원 연구원의 학술 연구 주제 발표,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한 노션(Notion) 사용법에 관하여 모두의 연구소 박현지 박사의 발표 및 원우간담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민 전임연구원은 ‘기업 거래와 고객 가치 전략 구현: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업 구조에 대한 전략적 개념에 대한 계량화를 시도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기반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지성 전임연구원은 ‘에너지 공급망의 탄소배출을 고려한 화석연료 보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ESCM 관리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면서 화석연료 보충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김해원 연구원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지식확산효과: 국내 산업클러스터의 혁신성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율과 클러스터 혁신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서, 클러스터 내 생산성 및 조직다양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과정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모두의 연구소 박현지 박사는 ‘효율적인 조직 성과 개선을 위한 노션(Notion) 사용 방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기업 문화에 대한 트렌드 분석 및 조직 성과 개선에 관한 발표로서, 학연산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컨설턴트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식서비스연구소의 목표와 어울리는 강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식서비스연구소 연구원 및 학생연구원들의 연구 관심사 공유할 수 있었으며, 변화하는 조직 성과 관리법을 다루는 법을 지식서비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적인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해원 박사과정(지식서비스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이번에 새로 지식서비스연구소 연구원으로 합류하신 김해원 박사과정께서 학위 과정을 진행중인 원우분들을 위하여 인터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해원 박사과정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작년 초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해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지식서비스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서비스 연구소의 일원이 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컨설팅 선도인력 양성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도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서비스 연구소가 지향하는 연구 방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최근에 지식서비스 연구소에 합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제가 전공이 경영전략이다 보니 다국적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전략적 제휴, 조직학습,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연구하고 있는 것보다 해야 할 연구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3. 어떻게 한양대학교 전략경영학과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학부 3학년 때 들었던 전공수업을 계기로 해서 대학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수님들과 컨택하던 중 윤우진 교수님께 제가 지도 제자로 공부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석사과정을 마친 후에 몇 년간 텀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동안 공부한 것이 아깝지 않냐고 박사과정까지 마치는 것을 제안해주셔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원 박사과정(지식서비스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4. 석사학위 과정을 마치면서 혹은 현재 박사 학위과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공부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대신 더 배워야겠다 혹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라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논리적인게, 그리고 독자가 쉽게 잘 읽을 수 있는 좋은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논문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업병처럼 단순한 수업 공지글 같은 문구를 쓸 때도 계속 여러 번 생각하고 쓰게 된다는 점이 일상생활에서 힘든 부분입니다.

5.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있을까요?

먼저, 학부 때를 생각하면 경영컨설팅 수업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영학의 여러 전공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기업 사례를 분석해보는 것도 매우 큰 경험이 되고, 한 기업을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실무 경영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세미나식 수업이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연구방법론 수업이 실제 논문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6. 학위과정을 진행 중인 원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기들을 포함하여 선배님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기들끼리 서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전공을 가진 여러 동기와의 대화가 실제로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들과 선배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미처 생각지 못한 관점으로 연구 주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학번이다 보니 선배님으로 불릴 때가 많은데 바쁘더라도 후배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다른 선배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후배님들도 선배님들을 너무 어려워 말고 논리를 가지고 한 번씩 싸워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실시간 음성 변환(Transcription) AI기술로 가까워진 ‘초연결’의 4차 산업혁명 시대 >>>

코로나 19 이후 많은 기업들은 업무 방식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며, 전례 없이 비대면 회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화상 회의를 통해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업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최근 포브스가 사무실 복귀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4 이상의 응답자는 사무실 근무 전환 이후에도 화상회의에 더 의존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사람들은 대면 회의보다 비대면 회의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비대면 회의 방식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회의는 100% 깔끔하지 않은 음질, 음성 지연 등으로 대면 회의에 비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AI 기술 개발과 연구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시장을 오테(Otter.ai)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테는 초기부터 ‘사람 간 대화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대화 녹음 데이터로 딥러닝 AI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고, 회의 및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테의 기술은 장시간동안 나누는 대화 속 화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국적과 지역의 억양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테는 줌(Zoom)이나 구글 미트(Google Meet),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 등과 같이 화상 회의를 지원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화상 회의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초연결의 시대가 실시간 음성 변환의 기술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스트마일 물류", 데이터 중심의 물류 프로세스



최근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비즈니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늘면서 D2C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물류 체계 고도화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물류, 그중에서도 라스트마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반품을 수령하는 물류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라스트마일 물류 프로세스는 수요의 변동이 시간 및 지역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의 고도화를 위한 차별화된 해법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디지털 물류 플랫폼, 데이터가 있습니다.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물류 시설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묶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물류 시설 및 장비, 인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안정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단독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투자 및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시간대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라스트마일 물류의 또 다른 핵심 해법으로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와 디지털 물류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연계돼 운영되는 과정에서 확보하게 되는 데이터는 서비스 유연성 및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아보시다.



연구소 및 대학원 1월 일정

날짜	내용	비고
1/6 (목) ~ 1/12 (수)	2021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대학원팀
1/10 (월) ~ 1/14 (금)	석박사통합과정포기·전환 및 포기 신청/ 재입학 신청	HY-in / 대학원팀
1/10 (월) ~ 1/21 (금)	2022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HY-in / 단과대학 행정팀
1/15 (토)	2022학년도 전기 신입학 특별전형2 면접시험	
1/28 (금)	2022학년도 전기 신입학 특별전형2 합격자 발표	대학원 홈페이지



[End of Document]